

자부심 뽐내듯 멋진노조 해불자

출생신고 완료

8.29(화)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에 노사가 서명하면서 현대모비스화성지회가 노동조합 출생신고를 마쳤다. 28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전체조합원의 85.5% 찬성(투표대비 92.8%)으로 가결됐고, 조인식을 거쳐 "64개 조항의 단체협약, 현장개선과 인원충원 관련 별도합의, 임금협약, 각 조항의 적용시기를 명시한 부속합의서" 총 4개의 합의를 결실로 맺었다.

이 모든 것을 5.27 설립총회 후 3달 만에 이뤄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확정, 집중실무교섭 등 과정에서 조합원도 늘어 500명에 이른다. 모든 것이 우리의 단결된 조직력의 성과다. 한 조합원은 "우리가 단협 체결하는 날이 오다니! 불과 4달 전만 해도 개처럼 일했었는데"라며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했다. 단협 조항들이 하나씩 실현되면 비로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평생 농사지을 권리의 터전을 근사하게 지은 것이 첫 번째 자부심이다. 우리는 현대모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의 첫 노조다. 현대그룹계열사 협력사 노조로서는 최초로 회사 안에 우리 권리의 터전, 사무실을 두게 됐다. 튼튼한 우리 집을 가꿔갈 전임간부 활동시간, 회의·교육·총회 등 조합활동 시간도 생겼다.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늘 일터를 개선해가며, 매년 단체교섭으로 삶을 가꿔갈 것이다.

임금은 200만원 인상효과가 있다. 설명회를 마친 후 한 조합원은 "내가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200만원 올랐는데, 노조 만들어서 한 번에 올랐네"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바꾸고 있

다. 하지만 우리 자부심은 돈이 아니다. 우리의 임금인상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전국의 우리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 7천여 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노동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만큼 우리만을 위한 조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부담도 크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의 가장 큰 자부심은 차별을 없애고 약하고 낮은 사람의 권리부터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여성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날·여성의날 선물 등 작지만 소중한 조항들을 첫 단협에 담았다. 모든 교육과 설명회에는 수화통역사가 함께한다. 인권부가 있는 노조도 유일할 것이다. 노조 생긴 후 회사가 채용한 계약직·수습사원·임시직 모두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힘 있다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낮은 곳부터 지키고 키워가는 것.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멋진 정신이다.

멋진 이웃 되자

안재연 지회장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현실에 맞게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바꾸며 차근차근 가자. 우리는 뭉쳐서 강하다.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또 "누군가는 민주노조를 위해 무임금으로 투쟁하며 설움을 토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이전에 우리의 고통과 같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그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자"며 만도헬라 추석재정사업 등에 동참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내 집만 채우고 꾸미지 않고 이웃의 약한 집 돕고, 집 없는 노동자를 위하는 멋진 노조가 되자고, 첫 단체협약 맺으며 우리 마음에 새겼다.

자부심 뽐내듯 멋진 노조, 멋진 이웃, 멋진 인생 해불자!



▲ 8.28(월)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투표하는 조합원들

▲ 29일 조인식, 첫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었다.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

싸움에서 적을 상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압도적 숫자에서나 정신력에서나 필요한 물자도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해서 싸우면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압도적 조직력과 단결력을 갖추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도부-조합원간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이 모든 것을 협력사만이 아닌 현대차그룹에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5월 27일 노조를 설립하고 3개월의 대장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드디어 생긴 우리 집! 좋은 가구랑 멋진 TV를 사는 것도 좋죠. 아마도 현대모비스화성지회는 매년 살림살이가 붙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안에 따스한 온기가 흐르고 동료 간에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조를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절실했기에 업체별, 개인별 입장을 넘어 지도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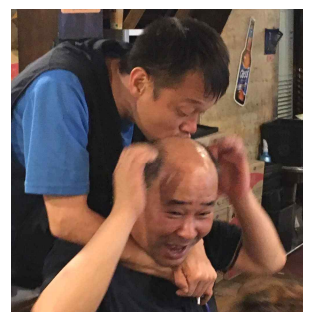
앞으로 복잡한 결정구조를 가진 모비스의 구조적 모순

과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업체별, 세대별, 개인별 입장을 넘어 단결불패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업체별 차이와 개인별 입장이 더 벌어지느냐, 좁혀져서 하나로 모어나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분열보다 단결을! 차이의 부각보다 각자의 입장을 모아 가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뼈까번쩍한 가구나 돈(실리)이 아니라 동료간의 이해와 사랑이 충만하게 피어나는 집안 공기입니다. 튼튼한 노조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나아가 집 없는 설움 속에서도 용기가 없어 당하고만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노동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만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전국의 모비스-위아 하청공장의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멋지고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개월 간 정말로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멋진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 교섭대표
금속노조경기지부 사무국장 **윤육동** 올림